



바른 독해의 바른시작

바
작



초등 국어

체험북

〈빠작 초등 국어〉 구매 시, 필기 노트 증정!

온라인 서점에서 빠작 초등 국어 1권 이상 구매 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기 쉬운 코넬식 필기 노트 증정!
- 이벤트 진행 서점: 예스24, 알라딘, 온라인 교보문고



*사은품은 한정 수량으로,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 선택 시 포인트가 일부 차감됩니다.

중고등까지 이어지는 국어 실력,
초등부터 국어 독해는 빠작!

❁ **지문 독해 - 지문 분석 - 어휘 학습 3단계의 체계적인 독해 훈련**

『빠작 초등 국어 독해』는 바른 독해법으로 훈련하는 초등 독해 기본서입니다.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지문 독해', 비문학 지문의 핵심 내용과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 독해 방법을 훈련하는 '지문 분석', 지문과 연계된 어휘를 매일 5개씩 학습하는 '어휘 학습'을 통해 독해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학년별 필수 비문학 주제와 문학 작품 선정하여 수록**

『빠작 초등 국어 비문학 독해』는 학년별 10개 영역의 세분화된 비문학 지문을, 『빠작 초등 국어 문학 독해』는 20편의 온작품을 읽으며 깊이 있는 독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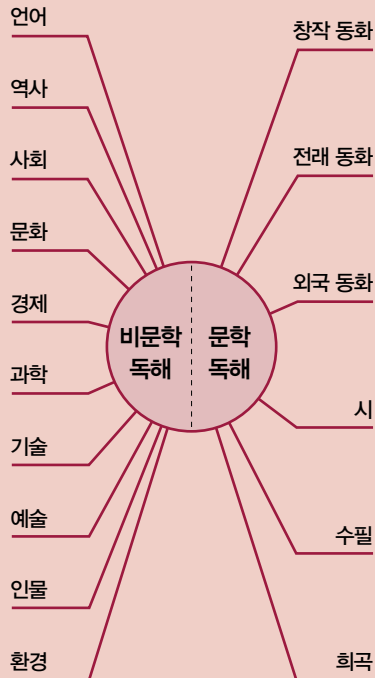
❁ **다양한 배경지식과 어휘 학습**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세밀화를 통해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학 작품과 관련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바른 독해의 빠른 시작,

〈빠작 초등 국어 독해〉는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1 차별화된 독해 지문 구성 (3~4학년 기준)



2 구조화된 지문 독해 문제 구성

문항 구조

핵심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글의 세부 내용,
표현, 어휘 이해

적용 및
추론

완벽한
지문 이해

3 지문 구조 분석을 통한 바른 독해 훈련

비문학

문학

핵심 주제어
찾기

인물·사건
배경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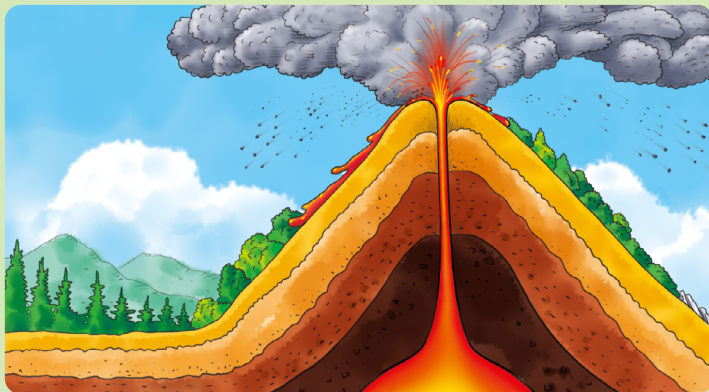
문단별
요약하기

사건 전개
정리하기

도식화하여
정리하기

글의 주제
정리하기

4 다양한 배경지식 습득



• 세밀화를 통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5 지문별 5개 필수 어휘 학습

5
개
필수 어휘

정확한
사전적 의미
알기

문장에서의
쓰임
알기

독해에
어휘
적용하기

차별화된 독해 지문

영역별 구성

01

지문 분석 강의 제공

KEY WORD

문명

글자 수

400 600 800 1000

핵심 키워드 제공

고대 문명을 발생시킨 강

1 세계에서 문명이 처음 발생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그리스, 로마, 유라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고대 문명이 발생했다.

2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물줄기 구획이 농사를 짓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따라 살아가는 습성을 기렸다. 이렇게 나일강의 혜택을 지역과 교류하기가 쉬웠다.

3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옛날에는 인디스강이 호수나 늪을 형성하여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농사를 짓고, 그 과정에서 지배 계급이 생겨나고 도시가 만들어져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

4 중국 문명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인 황하강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사막을 시나는 황하강은 건홍과 모래로 인해 도란책을 본다. 강물이 실어 온 황토는 풍부한 양분을 품고 있었고, 덕분에 이곳 사람들은 풍요로운 농경 생활을 할 수 있었다.

5 이렇듯 고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었다. 강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과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문명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구조화된 독해 문제

핵심 주제 파악

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문단에서 찾아 밑줄 그으세요.

()

세부 내용 이해

2 다음 글의 4대 문명과 관련이 있는 것을 각각 선으로 이으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 나일강

이집트 문명 () 황하강

인도 문명 () 인디스강

중국 문명 () 유라시아강

적용 및 추론

3 다음 글을 통해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①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문명은 무엇인가요?
 ② 4대 문명의 공통적인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요?
 ③ 중국 황하강이 도란책을 떠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④ 사람들이 강 주변에 모여 살았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⑤ 강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4 다음 글과 관련하여 **오해**에 대해 적절하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

최근 북한의 대동강 주변에서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로 인해 대동강 지역에서 발생한 청동기 문명이 고조선이 건국된 이후 한반도 전체와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퍼져 나갔음이 밝혀졌다.

① 세로: 청동기 문명은 고조선이 건국된 후에 사라졌다.
 ② 현서: 한반도에서도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구나.
 ③ 하은: 고조선의 문명은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 생겨날 수 있었어.
 ④ 이연: 한반도의 문명은 다른 문명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구나.
 ⑤ 정훈: 유물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을 보니 교통수단이 발달했겠네.

지문 분석 & 배경지식

문단별 핵심어 찾기

1 문단 요약

다음 문단을 재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1문단	세계 4대 ()이 발생한 지역
2문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 요인
3문단	() 문명의 발생 요인
4문단	인도 문명의 발생 요인
5문단	() 문명의 발생 요인
6문단	문명을 발생시킨 공통적인 요인인 ()

문단 구조 파악하기

2 중심 내용

다음 문단을 재워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완성하세요.

고대 문명이 처음 발생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 중국으로, 이 네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큰 ()을 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강은 ()과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문명 탄생의 결정적인 ()이 되었다.

배경지식 쌓기

배경지식

다음은 세계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오늘의 어휘

어휘의 사전적 의미 알기

다음 낱말의 앞칸에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요인 : 바다, 호수, 강 등의 물의 높이.

교류 : 문화나 사상 등을 서로 주고받음.

수위 : 강이나 시내의 물이 차지 흘러넘침.

법랍 : 흙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비옥한 : 사물이나 사안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까닭, 또는 조건이 되는 요소.

어휘의 쓰임 알기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오늘의 어휘**에서 찾아 쓰세요.

· 이웃 국가와 ()가 거의 없다.
 ·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했다.
 · 그 사고가 일어난 ()을 조사했다.
 · 강이 ()를 낮추기 위해 댐의 물을 열었다.
 ·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 땅을 찾았다.

독해에 어휘 적용하기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 쓰세요.

성장이 청소년의 키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받는다.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충분히 잠을 자는 것, 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등이 키가 확실히 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영향이다.

비문학과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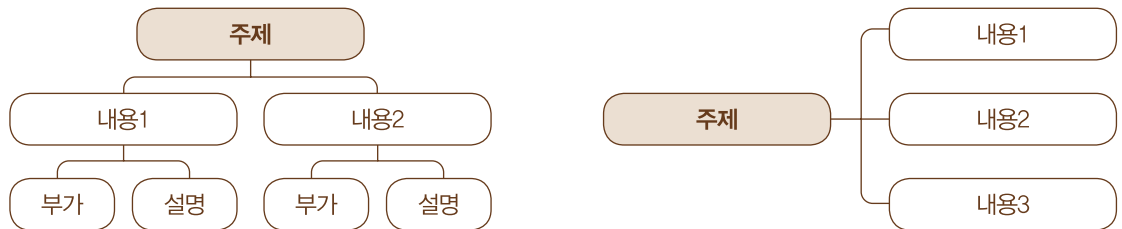
바른 독해 방법이 다릅니다

비문학의 바른 독해 방법

비문학은 핵심 주제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문학은 지식이나 정보 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글의 핵심 주제, 문단별 핵심 내용, 글쓴이의 관점 등을 이해하며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문학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려면 글의 전체 구조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하고,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문단별 중심 내용 그리고 핵심 주제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설명문의 일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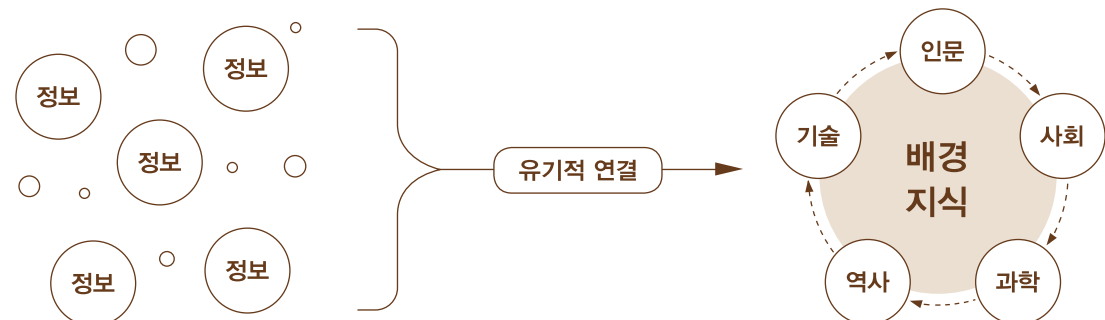


논설문의 일반 구조



비문학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쌓아야 합니다.

비문학은 어린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쌓는 것이 독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독해 교재를 학습하면서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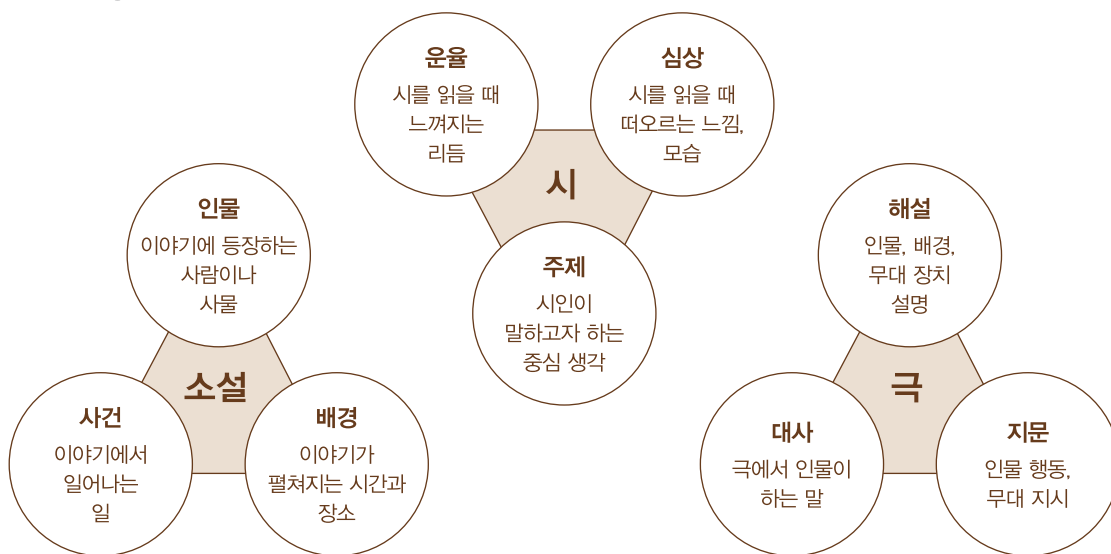


문학의 바른 독해 방법

문학은 갈래별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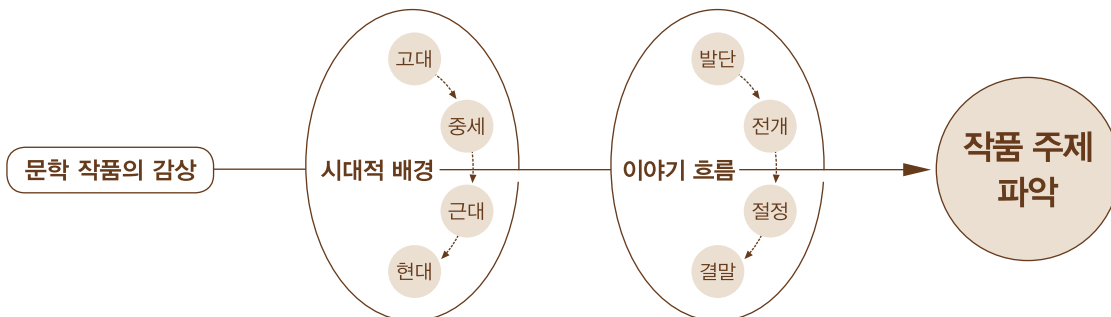
문학은 소설, 시, 수필, 희곡 등 갈래에 따라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갈래별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읽고, 갈래에 따른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의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온작품을 읽으면 작품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래별 구성 요소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내용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작가가 전하고 싶은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글의 내용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독해의 빠른 시작,

〈빠작 초등 국어 독해〉를 소개합니다

- ① 비문학과 문학을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독해를 훈련하는 초등 국어 독해 기본서입니다.
- ② 설명문, 논설문 등 비문학 글의 종류별 지문 분석 훈련으로 바른 독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 ③ 소설, 시, 수필 등 문학 작품의 갈래별 지문 감상 훈련으로 바른 독해 학습이 가능합니다.

빠작 비문학 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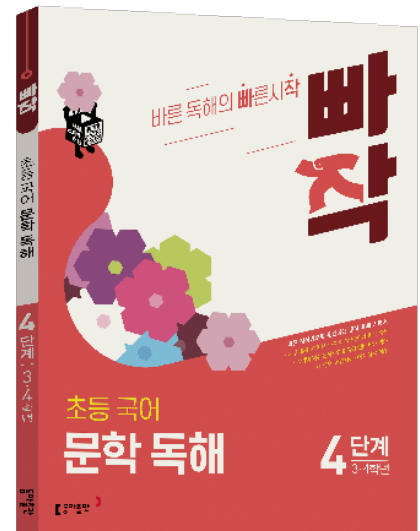


단계	대상	영역
1단계	1~2학년	언어, 실용/생활, 사회, 문화, 경제, 자연/과학, 기술, 예술, 인물, 안전/위생
2단계		
3단계	3~4학년	언어, 역사,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인물, 환경
4단계		
5단계	5~6학년	언어, 인문,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인물, 환경
6단계		

주요 키워드

- 1~2단계 가족 (1단계 실용/생활), 낮과 밤 (2단계 자연/과학), 이 닦기 (2단계 안전/위생)
- 3~4단계 문명 (3단계 역사), 물물 교환 (3단계 경제), 조선 건국 (4단계 역사)
- 5~6단계 커피 (5단계 인문), 백신 (5단계 과학), 심리학 (6단계 인문)

빠작 문학 독해



단계	대상	갈래
1단계	1~2학년	창작·전래·외국 동화, 동시, 동요, 수필, 희곡
2단계		
3단계	3~4학년	창작·전래·외국 동화, 시, 현대·고전·외국 수필, 희곡
4단계		
5단계	5~6학년	현대·고전·외국 소설, 현대시, 고전 시조, 현대·고전 수필, 시나리오
6단계		

주요 작품

- 1~2단계 아기의 대답 (1단계 시), 꺼봉이 억수 (2단계 창작 동화), 만복이네 떡집 (2단계 창작 동화)
- 3~4단계 바위나라와 아기별 (3단계 창작 동화), 잘못 뽑은 반장 (4단계 창작 동화), 물새알 산새알 (4단계 시)
- 5~6단계 이상한 선생님 (5단계 현대 소설), 고무신 (6단계 현대 소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6단계 현대시)



빠작 초등 국어 독해 체험북 안내

비문학 독해 (2단계)

- 1. **문화** 온돌은 무엇일까요? 08쪽
- 2. **자연/과학** 비나 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2쪽

비문학 독해 (3단계)

- 1. **역사** 강화도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 16쪽
- 2. **예술**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 20쪽

비문학 독해 (4단계)

- 1. **언어**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 24쪽
- 2. **문화** 한식의 유래 28쪽

문학 독해 (5단계)

- 1. **소설** 핑 ❶ 32쪽
- 2. **소설** 핑 ❷ 36쪽
- 3. **소설** 핑 ❸ 40쪽

비문학 독해 | 문학 독해 해설 44쪽

본 체험북은 빠작 초등 국어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에서 일부 발췌하여 9개 지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록된 QR 코드 지문 분석 동영상 강의는 11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문분석

KEY WORD

온돌

글자 수

553

200 400 600 800

비문학
독해
2단계

온돌은 무엇일까요?

1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요. 온돌은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 낸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난방 장치예요.

2 온돌방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방 옆쪽에 구멍을 뚫어서 불을 뿜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방고래를 만들어요. 방고래는 아궁이에서 뚫 불길과 연기가 나가는 길이에요.

3 그다음엔 구들장을 만들어야 해요. ‘구들’은 ‘구운 돌’에서 나온 말이에요. 넓고 평평한 돌인 구들장은 방고래 위에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구들장을 만들 때는 방고래 둘레에 구들장을 받칠 수 있는 두둑도 만들지요.

4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구들장 위에 흙을 발라 방바닥을 만들어요. 온돌방 옆에는 굴뚝을 만들어서 연기가 빠져나오는 길도 만들어야 하지요.



5 이제 아궁이에 불을 때면 연기와 함께 들어온 뜨거운 공기가 방고래를 지나면서 구들장을 뜨겁게 달궜 주지요. 그러면 방바닥이 따뜻해져요.

6 이러한 온돌의 구조로 온돌방은 사람이 앉았을 때 머리 쪽은 차갑고, 엉덩이 쪽은 따뜻한 쾌적한 환경이 되어요. 이렇게 온돌은 아주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의 문화예요.

- 사계절(四 季 節, 四 時 節)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철.
- 독창적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
- 난방 방이나 건물 안을 따뜻하게 하는 일.
- 아궁이 방이나 가마솥 등을 덥히려고 불을 피우는 구멍.
- 달궜 철이나 돌에 불을 대어 뜨겁게 하여.
- 우수한 뛰어난.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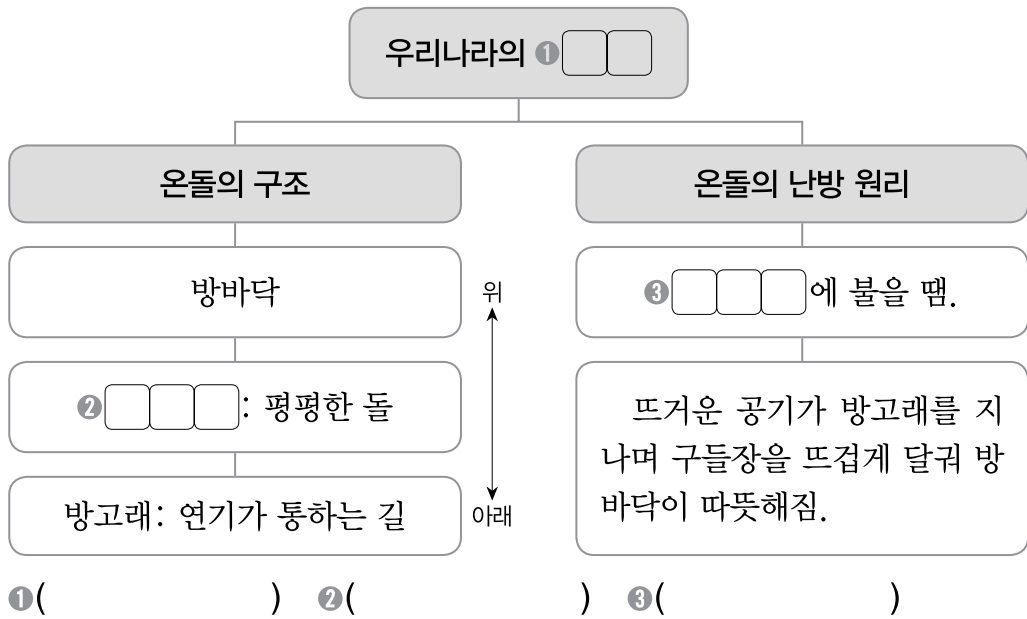
1 문단 요약

다음은 이 글에 나타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알맞은 것에 ○표, 틀린 것에 ×표를 하세요.

- 1 문단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난방 장치인 온돌 ()
- 2 ~ 5 문단 온돌의 구조와 난방 원리 ()
- 6 문단 오늘날의 난방 장치 ()

2 글의 구조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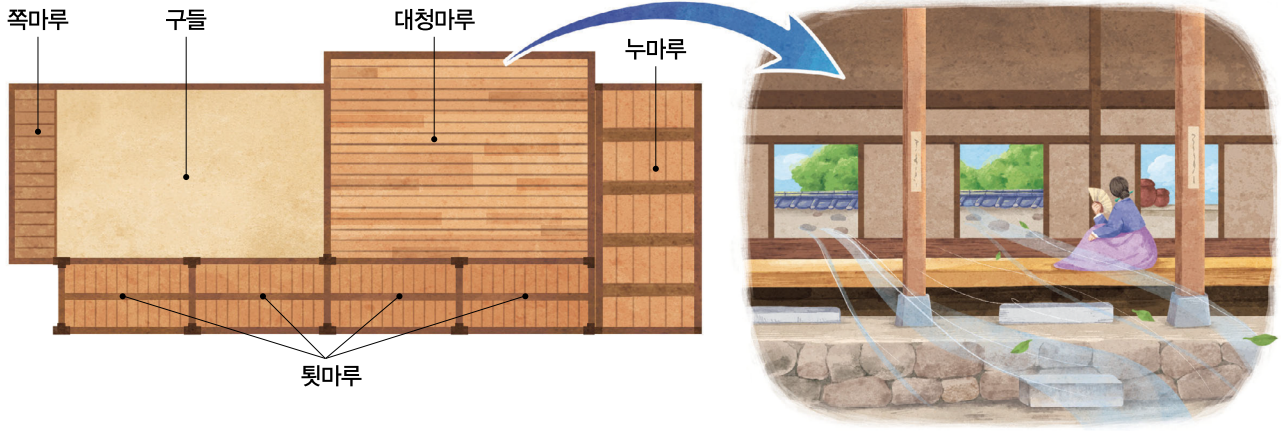


비문학
독해
2단계

배경지식

우리 조상들의 여름 나기, '마루'

마루는 집 안의 땅바닥보다 높게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으로,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집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 독창적 · · 뛰어난.
- 난방 · · 철이나 돌에 불을 대어 뜨겁게 하여.
- 아궁이 · · 방이나 건물 안을 따뜻하게 하는 일.
- 달귀 · · 방이나 가마솥 등을 덥히려고 불을 피우는 구멍.
- 우수한 ·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오늘의 어휘** 에서 찾아 쓰세요.

- 추운 곳일수록 장치를 잘 갖춰야 한다.
- 옛날에는 에 불을 피워 밥을 해 먹었다.
- 대장간은 쇠를 호미나 닳 등을 만드는 곳이다.
- 친구가 페트병을 이용해서 인 화분을 만들었다.
- 온돌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비문학
독해
2단계

2 다음 밑줄 친 말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에서 찾아 ○표를 하세요.

옛날과 달리 오늘날에는 냉방 시설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많아져서 환경이 오염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순환, 환기, 난방)



지문분석

KEY WORD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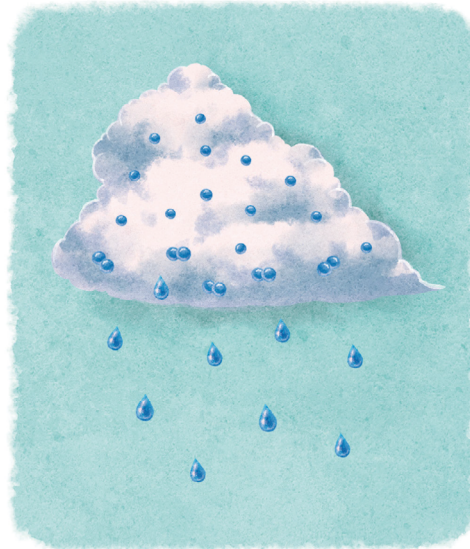
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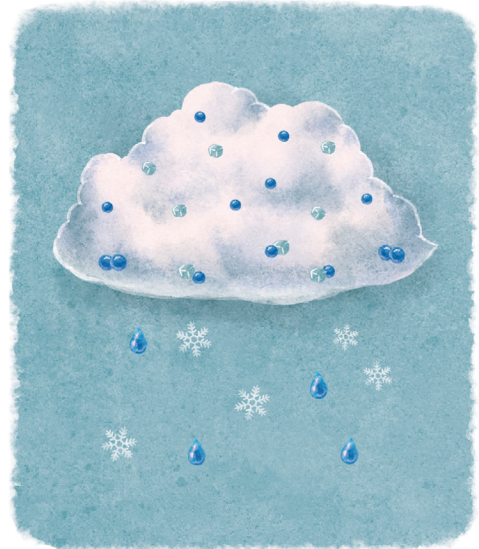
비나 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나 눈은 구름에서 만들어져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비나 눈이 되는데, 어떻게 구름이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요.

2 먼저, ㉡ 따뜻한 구름 속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사계절이 있는 곳의 여름철이나 더운 적도 지방 위에 떠 있는 구름 속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많아요. 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치고 합쳐지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물방울들이 점점 ㉢ 커져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해요.



따뜻한 비가 내리는 모습



차가운 비가 내리는 모습

3 그다음은 차가운 구름 속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사계절이 있는 곳의 겨울철이나 남극과 북극 지방 위에 떠 있는 구름 속에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뒤섞여 있어요. 이 물방울들이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져서 ㉣ 무거워지면 땅으로 ㉤ 떨어지게 되어요. 떨어지다가 녹지 않으면 눈이 되고, 녹으면 비가 되어 내리게 되지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해요.

- **설명**(說 말씀 설, 明 밝을 명) 내용이나 이유 등을 상대방이 잘 알기 쉽게 풀어서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과정**(過 지날 과, 程 단위 정)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순서.
-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
- **적도** 위도 0°로,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 적도 지역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일이 많음.
- **지방** 어느 장소나 지역이 있는 방향의 땅.

5

10

15

비문학
독해
2단계



설명 대상

1 다음은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 구름이 나 이 되는 과정

내용 이해

2 다음 중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비나 눈은 구름에서 만들어진다.
- ② 따뜻한 구름 속에서 비가 만들어진다.
- ③ 차가운 구름 속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진다.
- ④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은 한 가지뿐이다.
- ⑤ 구름 속에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들어 있다.

추론하기

3 다음 중 '따뜻한 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차가운 지역에서 내리는 비
- ② 우리나라의 겨울에 내리는 비
- ③ 우리나라의 여름에 내리는 비
- ④ 남극이나 북극에서 내리는 비
- ⑤ 구름 속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내리는 비

어휘·어법

4 ㉠~㉤과 뜻이 반대되는 말을 알맞게 짝 지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

- ① ㉠: 작은 ↔ 큰
- ② ㉡: 따뜻한 ↔ 미지근한
- ③ ㉢: 커져서 ↔ 적어져서
- ④ ㉣: 무거워지면 ↔ 가벼워지면
- ⑤ ㉤: 떨어지게 ↔ 내려가게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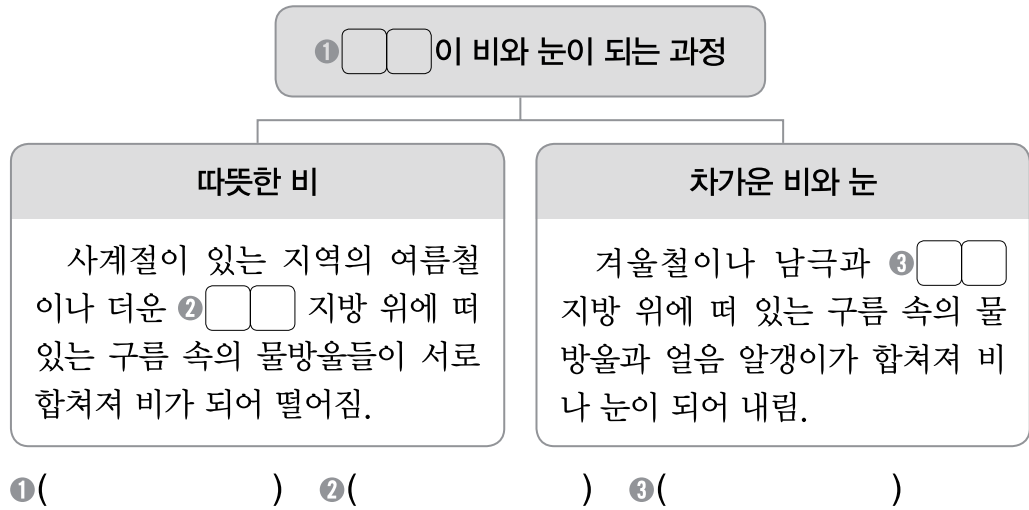
1 문단 요약

다음은 이 글에 나타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알맞은 것에 ○표, 틀린 것에 ×표를 하세요.

- 1 문단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
- 2 문단 따뜻한 비가 내리는 과정 ()
- 3 문단 차가운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 ()

2 글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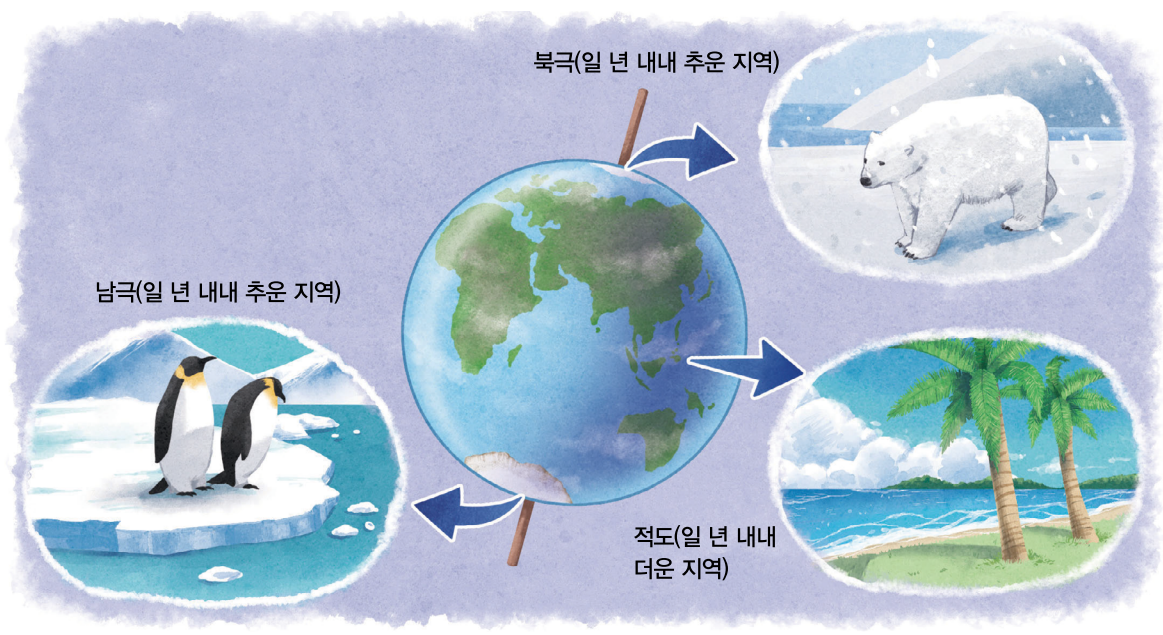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비문학
독해
2단계

배경지식

지구의 적도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 설명** · ·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
- 과정** · · 어느 장소나 지역이 있는 방향의 땅.
- 사계절** · ·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순서.
- 적도** · · 내용이나 이유 등을 상대방이 잘 알기 쉽게 풀어서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
- 지방** · · 위도 0°로,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 적도 지역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일이 많음.

1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오늘의 어휘** 에서 찾아 쓰세요.

- 우리나라는 의 변화가 뚜렷하다.
-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의 빙하가 녹고 있다.
- 선생님의 을 들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해된다.
- 수업 시간에 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을 배웠다.
- 지역은 태양 광선이 바로 내리쬐어서 날씨가 무덥고 습하다.

비문학
독해
2단계

2 다음 밑줄 친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에서 찾아 ○표를 하세요.

편지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쓰는 것이 좋아요. 먼저 편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떠올려요. 그리고 나서 편지 쓰는 차례에 맞게 쓰면 되어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와 쓴 사람 순으로 쓰면 되지요.

(기회, 목적, 과정)



지문분석

KEY WORD

강화도

글자 수

744

400 600 800 1000

강화도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

1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다. 강화도에는 남한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이 있다.

2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은 ‘머리가 되는 산’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로,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마니산을 민족의 정기가 모인 곳이라 여겼고, 단군이 그곳에 돌을 쌓아 올려 참성단을 만들었다. 참성단은 하늘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단이다. 참성단의 모양을 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믿었던 고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참성단의 아랫부분은 하늘의 모양을 본떠 원형으로 쌓았고, 윗부분은 땅의 모양을 본떠 네모꼴로 쌓았다.

3 강화도에 있는 삼랑성은 정족산에 있어서 ‘정족산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단군은 먼 훗날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침략할 것을 염려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강의 입구인 강화도에 튼튼한 산성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단군의 명을 받은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고 하여 ‘삼랑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훗날 조선 후기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양현수 장군은 적군을 삼랑성으로 유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결국 단군의 예언대로 삼랑성이 나라를 지킨 것이다.

4 고조선과 관련한 유적 대부분은 중국이나 북한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스럽게도 강화도에 참성단과 삼랑성이 있어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점인 고조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5
10
15
20

비문학
독해
3단계

- 고조선(古 옛 고, 朝 아침 조, 鮮 고을 선) 단군이 세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 정기(精 찢을 정, 氣 기운 기) 민족의 정신과 기운.
- 기원(祈 빌 기, 願 바랄 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
- 침략(侵 침노할 침, 略 다스릴략)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 점령(占 차지할 점, 領 거느릴령) 남의 땅이나 장소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함.
- 유인(誘 끌 유, 引 끌 인) 남을 속이거나 끌어 끌어들이.
- 예언(豫 미리 예, 言 말씀 언)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 흔적(痕 흉터 흔, 跡 자취 적) 어떤 현상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지문 분석

1 문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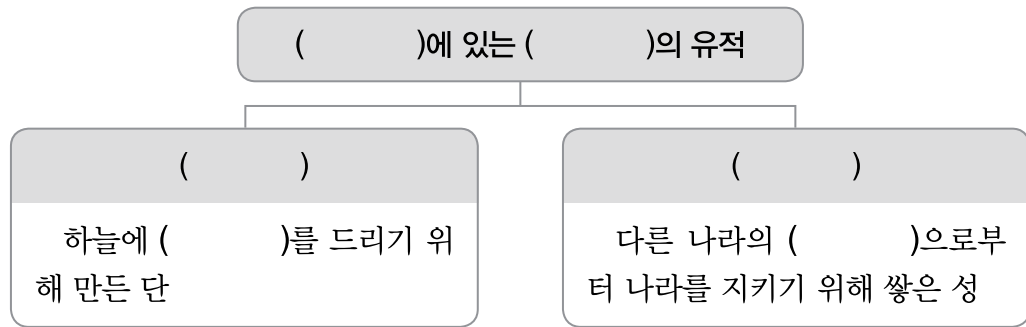
다음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단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 ㉠ 삼랑성에 대한 소개
- ㉡ 참성단에 대한 소개
- ㉢ 참성단과 삼랑성의 의미
- ㉣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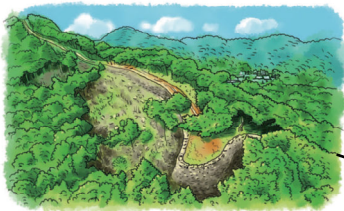
2 글의 구조

다음 빈칸을 채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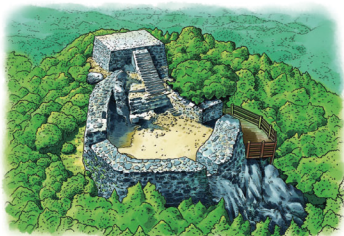


배경지식

강화도로 떠나는 역사 여행



강화 삼랑성



강화 참성단



강화 부근리 지석묘

지석묘란 청동기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한다.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땅 위에 책상처럼 세운 탁자식 고인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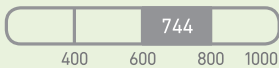


지문분석

KEY WORD

경복궁

글자 수



- **일등 공신**(一 하나 일, 等 같을 등, 功 공 공, 臣 신하 신) 나라를 위하여 으뜸가는 공을 세운 신하.
- **공식적**(公 공평할 공, 式 법식, 的 과녁 적) 국가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
- **사신**(使 부릴 사, 臣 신하 신) 임금이나 나라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보내어지는 신하.
- **조화**(調 고를 조, 和 화목할 화) 서로 잘 어울림.
- **태평**(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함.
- **훼손**(毀 헐 훼, 損 덜 손)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
- **복원**(復 돌아올 복, 元 으뜸 원) 원래대로 회복함.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

- 1 경복궁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궁궐이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조선 건국의 **일등 공신**인 정도전이 지은 것으로,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누리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경복궁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이름도 각각의 쓰임새를 고려해서 지어졌다.
- 2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하다.’라는 뜻의 이름이다.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거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곳이다. 외국에서 온 **사신**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것도 이곳에서 했다.
- 3 강녕전과 교태전은 각각 왕과 왕비가 잠을 자는 공간이다. 강녕전은 ‘편안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으로, 왕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의미이다. 교태전은 세종 대왕이 지은 이름으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태평**하다.’라는 뜻이다. 교태전은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며, 뒤뜰에는 **아미산**이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 4 경회루는 ‘왕과 신하가 덕으로 만난 경사스러운 잔치’라는 뜻의 이름이다. 외국 사신이 왔을 때 큰 잔치를 열었던 곳으로, 임금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경회루는 넓은 연못 가운데에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높게 지어져서 경복궁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 5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궁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안타깝게도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건물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지금은 예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국가에서 **복원**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점차 경복궁의 참모습을 되찾고 있다.

5

10

15

20



핵심어

1 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낱말을 찾아 세 글자로 쓰세요. ()

내용 이해

2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찾아 ○표를 하세요.

- (1) 경복궁은 '편안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이다. ()
- (2)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하다.'라는 뜻이다. ()
- (3) 강녕전은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 태평하다.'라는 뜻이다. ()
- (4) 경회루는 '왕과 신하가 덕으로 만난 경사스러운 잔치'라는 뜻이다. ()

추론하기

3 이 글을 통해 답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교태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 ②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 ③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 ④ 경복궁에서 새로 복원된 건물은 무엇인가요?
- ⑤ 경복궁에서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은 어디인가요?

적용하기

4 다음 중 경복궁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

- ① 준수: 우리 집 강아지는 너무 작아서 이름이 '쪼꼬미'야.
- ② 세영: 따릉따릉 소리가 나는 자전거니까 '따릉이'라고 부를래.
- ③ 가은: 이 고양이는 털이 까만색이니까 '까망'이라고 불러야겠어.
- ④ 선호: 이 방은 내가 공부를 하는 방이어서 '열공방'으로 이름 붙였어.
- ⑤ 지나: 우리 팀 친구들이 전부 안경을 썼으니 팀 이름을 '안경팀'이라고 짓자.

비문학
독해
3단계

1 정보 확인

다음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의 쓰임새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근정전	•	•	큰 잔치를 여는 곳
강녕전	•	•	왕이 잠을 자는 곳
교태전	•	•	왕비가 잠을 자는 곳
경회루	•	•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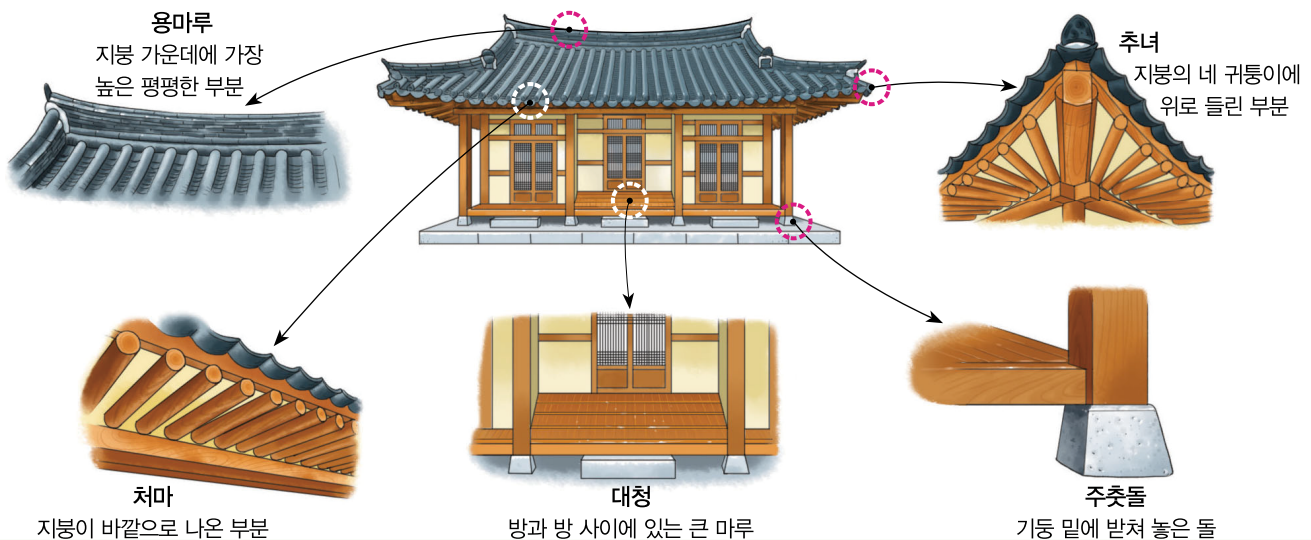
2 문단 요약

다음 빈칸을 채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1 문단	경복궁의 ()이 지닌 의미
2 문단	()의 의미와 쓰임새
3 문단	()과 교태전의 의미와 쓰임새
4 문단	()의 의미와 쓰임새
5 문단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 작업

배경지식

한옥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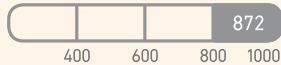


지문분석

KEY WORD

디지털 시대의 한글

글자 수



- 천지인(天 하늘 천, 地 땅 지, 人 사람 인) 우주를 이루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 글에서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글자인 ‘·’, ‘ㅡ’, ‘ㅣ’를 가리킴.
- 대폭(大 큰 대, 幅 폭 폭) 큰 폭이나 범위, 썩 많이.
- 인식(認 알 인, 識 알 식)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 변환(變 변할 변, 換 바꿀 환) 달라져서 바뀜. 또는 다르게 하여 바꿈.
- 대응(對 대답할 대, 應 응할 응)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
- 최적(最 가장 최, 適 맞을 적) 가장 알맞음.
- 모국어(母 어머니 모, 國 나라 국, 語 말씀 어) 자기 나라의 말.
- 강국(強 강할 강, 國 나라 국) 어떤 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

1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져서 글자만 보고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러한 장점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 편리함과 속도가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글을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에 중국의 한자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뜻의 ‘我爱你(위아이니).’를 입력하려면 우선 ‘위[wo]’라는 중국 발음을 알파벳으로 쳐야 한다. 그다음 ‘위’로 발음하는 한자 대여섯 개 중에서 ‘我’를 골라 선택한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야 입력할 수 있는 한자에 비해 한글은 자음자 14개, 모음자 12개의 키보드 자판을 그대로 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천지인 입력 방식을 이용하면 ‘·’, ‘ㅡ’, ‘ㅣ’의 세 모음자만으로 모든 글자의 모음자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자판의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3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음성 인식 기술에도 한글은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은 키보드 없이 사람의 음성으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의 경우,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에, 아, 에이’ 등 다양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영어는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로 변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글 ‘ㅏ’는 언제든지 ‘아’로만 발음한다. 즉,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도 최적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는 한글을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익혔기에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위대한 문자인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글의 우수성 덕분이다.

5

10

15

20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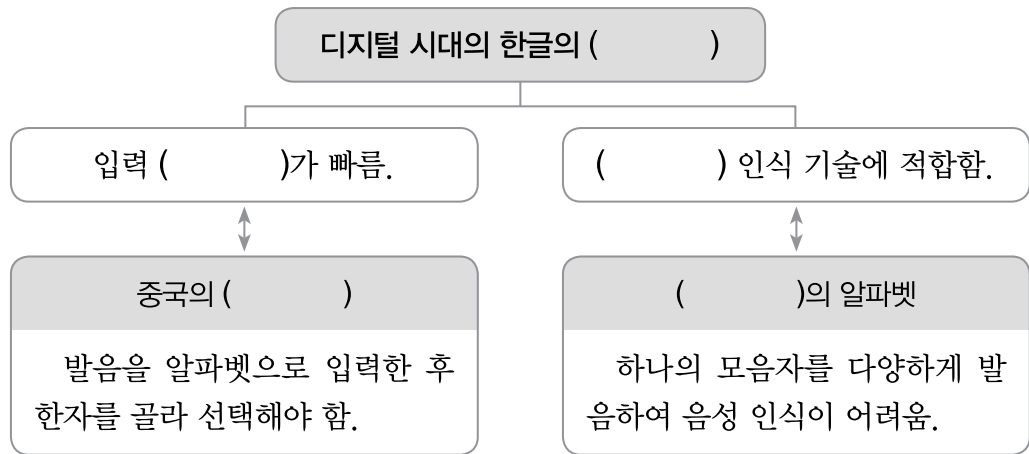
1 문단 요약

각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표, 틀린 것에 ✕표를 하세요.

- 1 문단 한글은 글자만 보고도 발음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다. ()
- 2 문단 한글은 입력 속도가 한자만큼 빠르다. ()
- 3 문단 한글은 음성 인식 기술에 적합하다. ()
- 4 문단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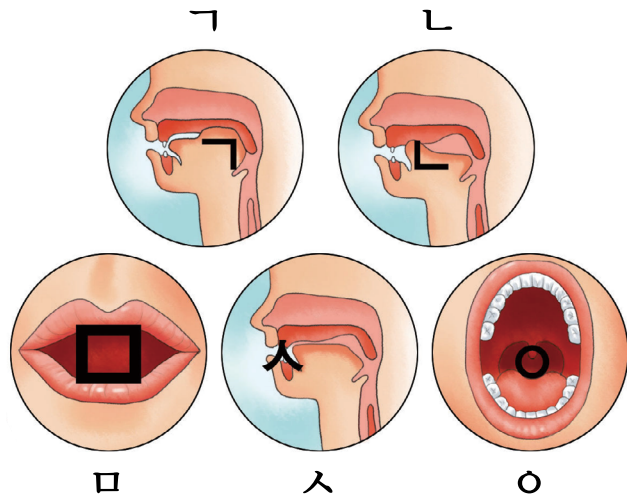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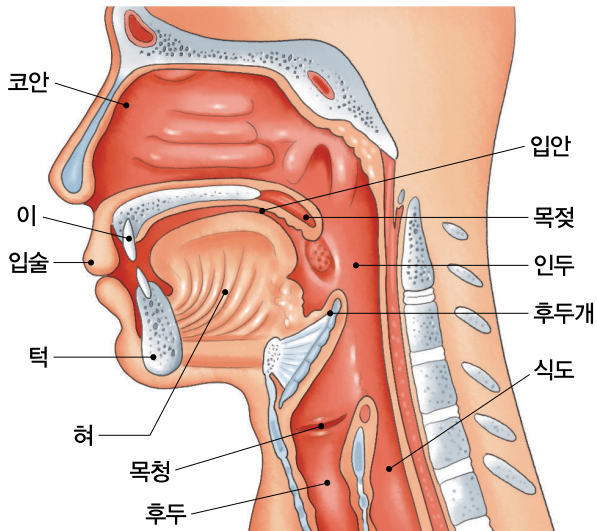
2 글의 구조

다음 빈칸을 채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배경지식

발음 기관과 한글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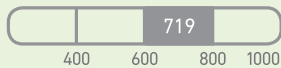


지문분석

KEY WORD

한식

글자 수



한식의



1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이다.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 한식인데 4월 5일이나 6일쯤이다. ‘한식(寒食)’은 ‘찬밥’이라는 뜻으로 이날은 불을 때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습에서 이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다.

2 한식의 유래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나는 중국 춘추 시대의 ㉠ ‘개자추 설화’이다. 개자추의 도움으로 즉위한 문공이 개자추를 멀리하자, 이에 분개한 개자추는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문공이 개자추를 불렀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문공은 개자추를 산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아 타 죽고 말았다. 크게 슬퍼한 문공이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개자추가 죽은 날에 불을 금했다는 데서 한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개자추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한식날 비가 오면 그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생겼다.

3 한식의 다른 유래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 오래된 불이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서 해마다 새 불을 만들었던 ‘개화 의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백성들이 일 년 동안 쓰던 불을 끄고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을 쓰지 못하니, 미리 지어 둔 찬밥을 먹었던 것에서 한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4 한식날에는 찬 음식을 먹는 것 외에 조상의 산소에 찾아가 묘를 손보고 제사를 지냈다. 우리 조상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한식과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석에 제사를 꼭 지냈다.

5
10
15
20

비문학
독해
4단계

- 동지(冬 겨울 동, 至 이를 지)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12월 22일이나 23일경임.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임.
- 설화(說 말씀 설, 話 말할 화) 각 민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
- 즉위(卽 곧 즉, 位 자리 위) 임금의 자리에 오름.
- 분개(憤 성낼 분, 慨 분개할 개) 몹시 분하게 여김.
- 기리기 칭찬하고 기억하기.
- 원시(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않은 상태.
- 의례(儀 거동 의, 禮 예도 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방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비롯되었다는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제목

1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도록 ㉠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두 글자로 쓰세요. ()

내용 이해

2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표를 하세요.
(1) 한식의 유래 ()
(2) 한식의 풍습 ()
(3) 제사상 차리는 법 ()
(4) 우리나라 4대 명절의 종류 ()

추론하기

3 이 글을 읽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
① 한식은 언제인가요?
② 한식날 찬 음식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한식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④ 오래된 불을 생명력이 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⑤ 한식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생긴 까닭은 무엇인가요?

어휘·어법

4 ㉡의 '문공'에게 가장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
① 우물에 가 송능 찾는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③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④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1 정보 확인

보기 에서 이 글의 핵심어를 찾아 ○표를 하세요.

보기

명절

설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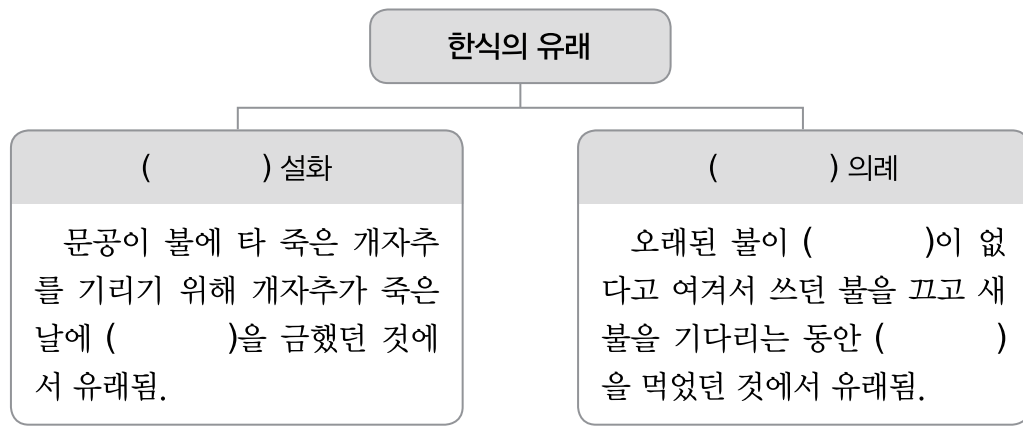
단오

추석

한식

2 글의 구조

다음 빈칸을 채워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배경지식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중에서 '적'은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의 재료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을 뜻하고, '전'은 재료를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한 뒤,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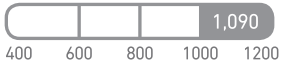


지문 분석

글의 구조



글자 수



- **보통이** 물건을 보자기에 써서 꾸러 놓은 것.
- **머슴살이** 남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대신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
- **산전(山 岬 山, 田 밭 전)** 산에 있는 밭.
- **단숨에** 쉬지 아니하고 곧장.
- **참꽃** 먹는 꽃이라는 뜻. 진달래를 이룸.
- **우쭐거리며** 가볍게 울동적으로 몸을 자꾸 움직이며.
- **재**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굉장 1 | 이오덕

㉠ “엄마, 정말 나 이제 학교 안 갈래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그릇을 무릎 앞에 놓고 먹을 생각도 않는 용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야가 또 이런다. 지발 어미 속 그만 썩여라. 3년이나 다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쩔래? 순이 봐라. 글 한 자도 모르제. 국민학교도 졸업 못 하면 어떡할라고.”

순이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작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하도 아이들이 곰보딱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요즘 아침밥만 먹으면 책 **보통이** 대신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로 나갑니다.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4학년 됐잖아요? 남의 책 보통이만 떼고 다니는 거 부끄럽다니까요.”

“글쎄, 그거 늘 하는 소리제. 지발 좀 참아라. 아이구, 없는 기 원수지.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못살게 하나!”

어머니도 밥순이를 들 생각을 앓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야야, 너 아버지도 올해만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까다. 한 해만 참아라. 부디 한 해만…….”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 그만뒤요? 올해만 하고?”

“너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게 해야지. 남의 **산전**을 얻어서 죽을 먹더라도…….”

㉡ 용이는 된장국에 보리밥을 말더니 **단숨에** 퍼먹고는 책 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 ‘올해만 참으면 된다!’

“용아, 빨리 나와!” / 바깥에서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

“야들아, 오늘은 우리, 고개 위에서 **참꽃** 좀 꺾어 가자!”

“아직 꽃도 안 폼을걸?” / “병에 꽃아 두면 빨리 핀단다.”

“그래, 꺾어 가자. 새 교실이 환하게.”

모진 겨울을 이겨 낸 보리들이 푸릇푸릇 살아난 밭둑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며** 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 그러다가 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모두 용이 발밑에 책 보통이를 던졌습니다. 3년 동안 용이 어깨에 매달려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 보통이들입니다. 용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용이까지 남의 집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 분석

1 인물 특징

이 글의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을 생각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용이
아버지가 ()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학교에 감.

순이
아이들이 ()라고 놀려서 ()를 그만두고 들로 나가 나물을 캐.

공통점 아버지의 직업이나 자신의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함.

2 갈등

용이와 아이들의 갈등을 정리하여 ()에 알맞은 말을 찾아 ○표 하세요.

용이
남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학교 가는 것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답답함.

아이들
용이 아버지가 머슴살이를 하니 용이도 (친구, 머슴)처럼 남의 집을 날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갈등한 결과 용이가 (정당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감.

배경지식

교육자이자 아동 문학가, 이오덕 작가

소설 「깽」을 쓴 이오덕 작가는 어린이 글쓰기 운동부터 우리말과 우리글을 다듬는 일에 힘써 온 우리말 연구가입니다. 이오덕 작가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시와 동화를 여러 편 쓰신 아동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깽」은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의 당선작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자주 만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오덕 작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농촌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작품을 주로 쓰셨습니다. 이오덕 작가가 쓴 주요 작품으로 「별들의 합창」, 「탱자나무 울타리」, 「까만 새」, 「아기 별이 사는 세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 재 • 산에 있는 밭.
- 산전 • 쉬지 아니하고 곤장.
- 단숨에 • 가볍게 울동적으로 몸을 자꾸 움직이며.
- 머슴살이 •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 우짚거리며 • 남의 농사일이나 잡일을 대신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일.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오늘의 어휘**에서 찾아 쓰세요.

- 누이는 너머 마을에 산다.
- 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들이켰다.
- 두메산골의 에는 썸바귀꽃이 피어 있었다.
- 바람이 세게 불자 허수아비가 자꾸 춤을 춘다.
- 그는 남의 집에서 를 하였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했다.

문학
독해
5단계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 쓰세요.

산에서 “야호!” 하고 외치면 잠시 후 “야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메아리’이다. 소리는 초속 340미터의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다 장애물에 부딪치면 흡수되거나 대번에 반사된다. 이때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어 되돌아온 소리가 바로, 메아리이다. 소리는 장애물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단숨에 반사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원래 소리와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에서 내는 소리는 멀리까지 가다가 절벽 같은 곳에 부딪쳐 돌아오므로, 원래 소리와 시간 차이를 두고 또렷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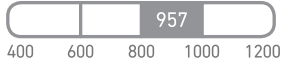
()



글의 구조



글자 수



문학
독해
5단계

- 수군거렸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했습니다.
- 풍지 새의 꿈무늬에 붙은 것.
- 채는 발에 힘껏 치는.
- 벼랑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 트이고 마음이나 가슴이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 마구 몹시 세차게.

썩 2 | 이오덕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 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은 용이를 돌아보면서 저희끼리 무엇이
라 수군거렸습니다.

“헤헤, 4학년이 됐다는 아이가 남의 책 보통이나 메다 주고…….”

“참 못난 아이제.”

모두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뭘, 못난 아이라고?’

가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이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갑자기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 보통이들을 그냥 콕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밟혔습니다.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집어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꼬공 꼬공, 푸드득!”

그것은 온 산골의 가리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있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야, 참 멋지다!’

날개를 짝 펴고 풍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평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 갑자기 어떤 힘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용이는 그 자리에서 한번 훌쩍 뛰어올라 보았습니다.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듯합니다. 용이는 발에 채는 책 보통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횡!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던 책 보통이가 펑 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용이는 두 번째 책 보통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마지막에 던진 작대기는 건너편 벼랑의 소나무 가지를 철썩 치도록 멀리 떨어졌습니다. / “됐다!”

용이는 이제 하늘이 탁 트이고 가슴이 시원해져서, 저 건너 산을 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

떠가는 구름을 따라 마구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이였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

용이는 제 책 보통이만 허리에 둘러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향해 날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중심 내용

1 이 글의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요? ()

- ① 꿩이 하늘 위로 날아간 일
- ② 용이가 꿩에게 돌을 던진 일
- ③ 용이가 고개를 향해 날 듯이 뛰어 올라간 일
- ④ 2, 3학년 아이들이 용이에 대해 수군거린 일
- ⑤ 용이가 꿩을 보고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집어 던진 일

표현

2 가 부분에서 용이의 분노를 나타낸 소재를 찾아 쓰세요. (3글자)

()

세부 내용

3 용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한 **그런 짓**은 무엇인가요? ()

- ① 책을 많이 들고 학교에 다니는 짓
- ② 돌맹이를 아이들을 향해 던지는 짓
- ③ 책 보통이를 골짜기에 집어 던지는 짓
- ④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다니는 짓
- ⑤ 아이들과 함께 남을 보고 수군거리는 부끄러운 짓

추론

4 하늘로 날아오르는 꿩을 본 용이의 감정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아이들에게 맞설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 ② 책 보통이를 짓밟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 ③ 자신은 꿩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어서 실망했을 것이다.
- ④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고 화려한 도시로 나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 ⑤ 돌맹이를 맞고 날아오른 꿩을 보며 염치없고 뻔뻔한 자신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지문 분석

1 소재 의미

이 글에 나타난 꿩의 모습을 찾아 쓰고, 꿩의 의미를 파악하여 ()에 알맞은 말을 찾아 ○표 하세요.

꿩의 모습	꿩의 의미
‘정말 살아 있는 ()의 소리’를 내며 힘차게 ()을 날아오름.	(포용력, 생명력)
날개를 짝 펴고 ()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을 넘어감.	(용기, 평화)

2 사건 전개

이 글의 사건 전개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 골짜기 아래에서 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 용이가 돌맹이를 집어 골짜기 아래로 던졌다.
- 용이가 제 책 보통이만 메고 고개로 뛰어 올라갔다.
- 용이가 2, 3학년 아이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문학
독해
5단계

배경지식

용이를 변화시킨 ‘꿩’



소설 「꿩」에서 용이는 꿩을 보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용이는 학교를 오고 갈 때마다 또래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나르면서 자신의 처지를 속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힘차게 날아오르는 꿩을 우연히 마주한 다음,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하나씩 던져 버렸지요. 꿩이 용이에게 큰 힘을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용이는 원래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나르는 자신을 못한 아이라고 여기면서도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꿩을 본 다음부터 용이는 아이들과 당당하게 맞서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꿩은 이 작품에서 용이의 행동 변화를 불러온 중요한 소재로, ‘자유’, ‘용기’, ‘자신감’ 등을 상징해요. 소설을 읽을 때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 벼랑 · · 몹시 세차게.
- 마구 · · 발에 힘껏 치이는.
- 채는 · · 낭떠러지의 험하고 가파른 언덕.
- 트이고 · · 마음이나 가슴이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 수군거렸습니다 · ·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했습니다.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오늘의 어휘**에서 찾아 쓰세요.

- 비바람이 몰아쳤다.
- 현지는 산에서 발을 헛디뎠다 으로 굴렀다.
- 한바탕 웃고 나니 속이 기분이 좋아졌다.
- 발에 푼포기마다 흠뻑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 그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

문학
독해
5단계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말과 뜻이 반대인 말을 찾아 쓰세요.

갈수록 앞길이 트이고 무엇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칙칙산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다가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환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헛갈릴 정도였다.

그런데 빽빽한 나무들로 꼭 막히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길을 지나자 순식간에 드넓은 벌판이 펼쳐졌다.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다들 낮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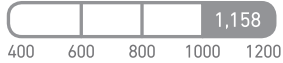
()



글의 구조



글자 수



문학
독해
5단계

- 인마 '이놈아'가 줄어든 말.
- 빙 일정한 둘레를 넓게 둘러싸는 모양.
- 몸놀림 몸의 움직임.
- 재빠른지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른 지.
- 한층 일정한 정도에서 한 단계 더.
- 인제 이제에 이르러.
- 내리받이 비탈진 곳의 내려가는 방향.

핑 3 | 이오덕

“어, 용이가 빈손으로 오네?” / “정말 저 자식이?” / “**인마**, 책 보통이 모두 어쨌나?”
용이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올라오고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용이를 **빙** 둘러쌌습니다.

“너, 책 보통이 어쨌어?” / “이 자식, 죽고 싶나? 빨리 말해!”

용이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그러나 힘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하게도 책 보통이를 모두 날리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 “너희들 책보 말이제? 저 밑에 두꺼비 바위 아래 던져 놔어.”

“뭐? 이 자식이!” / “이 자식 돌았나?” / “빨리 못 가져오겠나?”

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난 아이 아니야!” / “어, 이 자식이?”

“요런, 머슴의 자식이.” / “나쁜 자식! 맛 좀 볼래?”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덮쳐 왔을 때, 용이는 번개같이 거기를 빠져나와
몇 걸음 발을 옮기더니, 발밑에 있는 돌을 두 손으로 한 개씩 거머쥐고는 거기 있
는 커다란 바윗돌 위에 **깡충** 뛰어올랐습니다.

그 **몸놀림**이 어찌나 **재빠른지**,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용이와는
아주 다른, 판 아이였습니다.

“자, 덤빌람 덤벼! 누구든지 오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을 끼다!”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서 한 아이가,

“난, 내 책보 가질러 갈란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나도 간다.” / “나도 간다.” /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 자식, 두고 봐라.” /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성운이가 말했습니다.

“오냐, 인마, 얼마든지 봐 준다.” / 용이 목소리는 **한층** 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와아!’ 하고, 아까 올라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양을 보면서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하.’ 웃었습니다.

“나 **인제** 못난 아이 아니야!” / 그리고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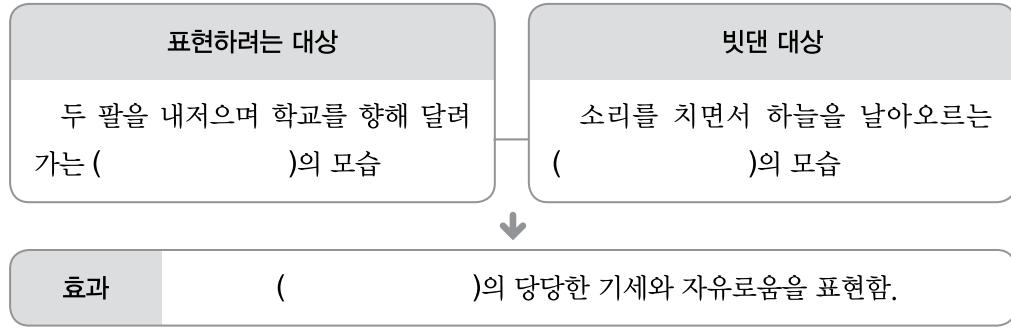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고 용서
안 할 끼다.”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받이**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뛰어갈 듯합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날고 있었습니다. 용이
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핑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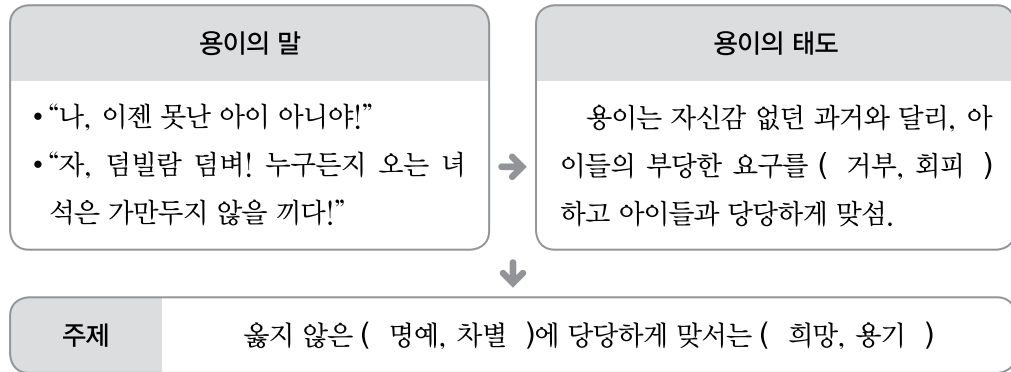
1 표현 효과

이 글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과 그 효과를 정리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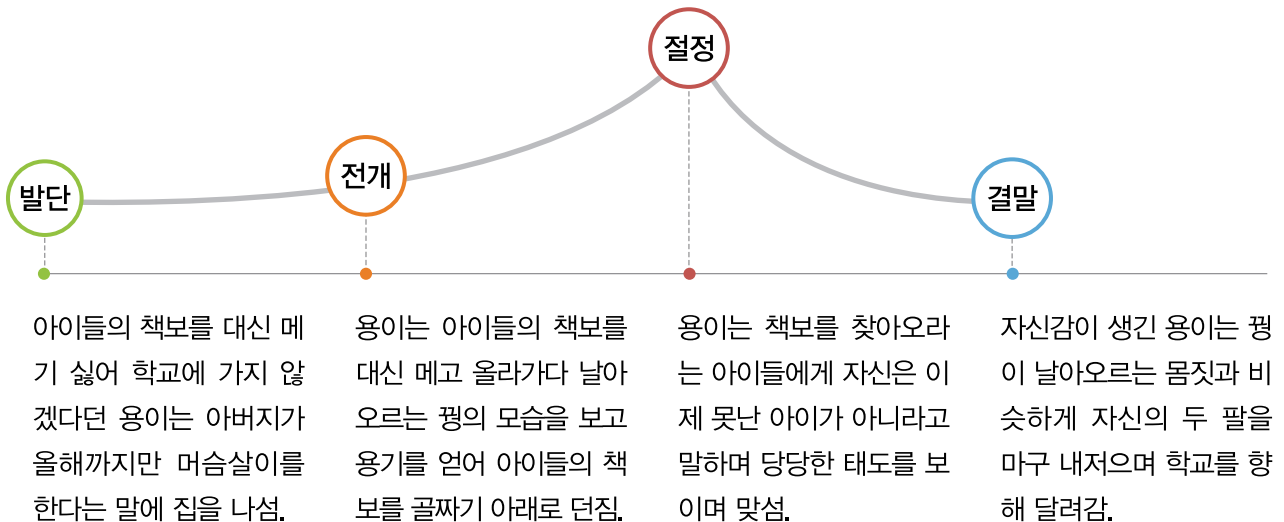
2 주제

용이의 말에 드러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글의 주제를 생각하며 ()에 알맞은 말을 찾아 ○표 하세요.



문학
독해
5단계

배경지식 「핑」 전체 줄거리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우수한 우리나라 전통 난방 장치인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온돌의 구조와 난방 원리 및 우수성

069 쪽 지문 독해

- 1 온돌 2 ④ 3 ③ 4 ④
- 이 글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난방 장치인 온돌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구들장’입니다.
 - 온돌이 언제까지 사용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온돌은 우리나라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난방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2~4문단에서 온돌의 구조는 아궁이와 방고래를 만들고 두둑을 쌓은 뒤 구들장을 올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6문단에서 온돌은 사람이 앉았을 때 머리 쪽은 차갑고, 엉덩이 쪽은 따뜻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우수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5문단에서 온돌방은 아궁이에 불을 피워 나온 뜨거운 공기가 방고래를 지나면서 열기가 전해지며 구들장을 달구어 따뜻해진다는 난방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온돌방은 머리 쪽은 차갑고 엉덩이 쪽은 따뜻하다고 하였으므로, 앉아서 생활하기에 쾌적하고 좋습니다.

오답 풀이

- ① 온돌은 추운 지방에 알맞은 난방 장치입니다.
- ② 온돌방에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길인 방고래가 있습니다.
- ③ 방고래에 두둑을 세우고 방고래 위에 구들장을 올립니다.
- ⑤ 온돌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독창적인 난방 장치입니다.

유형 분석/적용하기

글에 제시된 내용을 적용하여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말한 내용을 잘 읽고 글에서 알게 된 내용을 알맞게 적용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알쏭달쏭 맞춤법 잠시 쉬며 재미있게 익혀 보세요.

- 학생(로써, 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
 - ➔ 어떤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책을 읽음(로써, 로서) 지식을 쌓는다.
 - ➔ 어떤 물건의 재료, 원료,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말.

정답 로써 / 로써

070 쪽 지문 분석

- 1문단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난방 장치인 온돌 (○)
 - 2~5문단 온돌의 구조와 난방 원리 (○)
 - 6문단 오늘날의 난방 장치 (×)
- 우리나라의 ①

온돌의 구조

방바닥

② : 평평한 돌

방고래: 연기가 통하는 길

온돌의 난방 원리

③ 에 불을 댐.

뜨거운 공기가 방고래를 지나며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 방바닥이 따뜻해짐.

↑ 위 ↓ 아래

①(온돌) ②(구들장) ③(아궁이)

- 1문단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난방 장치인 온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문단에서는 온돌의 구조와 난방 원리를, 6문단에서는 온돌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난방 장치인 온돌의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난방 원리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071 쪽 오늘의 어휘

독창적

난방

아궁이

달궈

우수한

- 뛰어난.
- 철이나 돌에 불을 대어 뜨겁게 하여.
- 방이나 건물 안을 따뜻하게 하는 일.
- 방이나 가마솥 등을 덥히려고 불을 피우는 구멍.
-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 것 없이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내는 것.

- 난방 / 아궁이 / 달궈 / 독창적 / 우수한
- 난방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을, 따뜻한 비와 차가운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

107쪽 지문 독해

1 비, 눈 2 ④ 3 ③ 4 ①, ④

- 1 이 글은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답 풀이

- ① 비나 눈은 구름에서 만들어집니다.
- ② 따뜻한 구름 속에서 비가 만들어집니다.
- ③ 차가운 구름 속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집니다.
- ⑤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3 ‘따뜻한 비’는 따뜻한 지역의 구름 속의 수증기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치고 합쳐지면서 점점 크고 무거운 물방울이 되어 비로 내리는 것으로, 열대 지방이나 우리나라의 여름에 내리는 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분석/추론하기

글에 제시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따뜻한 비와 차가운 비가 어떤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지는지 유의합니다.

- 4 ‘작은’과 뜻이 반대되는 말은 ‘큰’이고, ‘무거워지면’과 뜻이 반대되는 말은 ‘가벼워지면’입니다.

오답 풀이

- ② ‘따뜻한’과 뜻이 반대되는 말은 ‘차가운’, 또는 ‘싸늘한’입니다.
- ③ ‘커져서’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작아져서’입니다.
- ⑤ ‘떨어지게’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올라가게’, 또는 ‘상승하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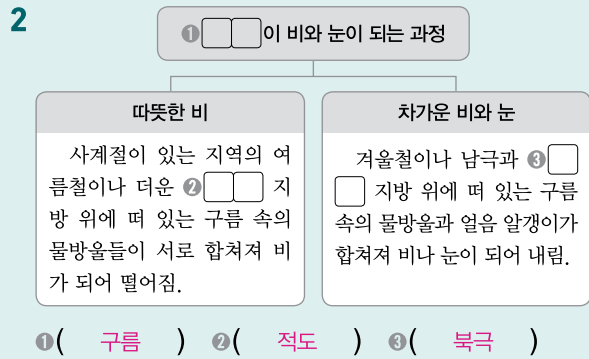
알쏭달쏭 맞춤법 잠시 쉬며 재미있게 익혀 보세요.

- 모래가 (싸이다, 쌓이다).
→ 어떤 것이 여러 겹으로 포개져서 많이 모이다.
- (아랫마을, 아랫마을)에 비가 많이 왔다.
→ 아래쪽에 있는 마을.

정답 쌓이다 / 아랫마을

108쪽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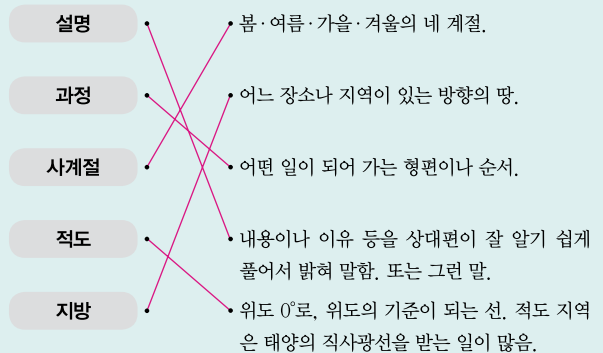
- 1
 - 1문단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
 - 2문단 따뜻한 비가 내리는 과정 (○)
 - 3문단 차가운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 (○)



- 1 이 글의 1문단에서는 구름이 비나 눈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문단에서는 따뜻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문단에서는 차가운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이 글은 구름이 비와 눈이 되는 과정을 따뜻한 비, 차가운 비와 눈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109쪽 오늘의 어휘



- 1 사계절 / 지방 / 설명 / 과정 / 적도
- 2 과정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남한에 남아 있는 고조선의 유적인 '강화 참성단'과 '강화 삼랑성'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강화도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의 의미

045 쪽 지문 독해

1 참성단, 삼랑성 2 (1) ○ (2) ○ (4) ○ 3 ③
4 ③

- 1 이 글은 강화도에 남아 있는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 2 (1) 마니산은 '머리가 되는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문단)
(2) 삼랑성의 다른 이름은 '정족산성'입니다. (3문단)
(4) 삼랑성은 단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세 아들에게 쌓게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문단)
- 3 '유비무환'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따라서 3문단에서 단군이 다른 나라가 이 땅을 침략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삼랑성을 쌓아 두었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 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 ①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 ② '대기만성'은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 ④ '오리무중'은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 ⑤ '어부지리'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이익을 가로챈다는 뜻입니다.

4 단군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대비해 한강이 아닌 강화도 정족산에 삼랑성이라는 산성을 쌓게 했습니다.

오답 풀이

- ① 고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입니다. (1문단)
- ② 고조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2문단)
- ④ 고조선과 관련한 유적 대부분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고조선의 영토 대부분은 지금의 북한과 중국 쪽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문단)
- ⑤ 참성단의 쓰임새로 보아, 고조선 사람들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문단)

046 쪽 지문 분석

㉠ 삼랑성에 대한 소개
㉡ 참성단에 대한 소개
㉢ 참성단과 삼랑성의 의미
㉣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

(㉠) → (㉡) → (㉢) → (㉣)

2 (강화도)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

(참성단)	(삼랑성)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단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쌓은 성

- 1 1문단에서는 강화도에 있는 고조선의 유적인 참성단과 삼랑성을 소개하고, 2문단에서는 참성단의 위치, 쓰임새, 모양 등을, 3문단에서는 삼랑성을 쌓은 목적, 유래, 쓰임새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참성단과 삼랑성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2 이 글에서는 강화도에 남아 있는 고조선의 유적 두 곳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047 쪽 오늘의 어휘

정기 → 민족의 정신과 기운.
기원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
점령 → 남을 속이거나 피어 끌어들이.
유인 →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예언 → 남의 땅이나 장소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함.

1 점령 / 정기 / 예언 / 기원 / 유인
2 점령

정답과 해설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경복궁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이름의 의미와 쓰임새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의 이름과 쓰임새

133쪽 지문 독해

1 경복궁 2 (2) ○ (4) ○ 3 ④ 4 ④

1 이 글은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경복궁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이름이 지닌 뜻과 각 건물의 쓰임새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2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하다.’라는 뜻이며, 경회루는 ‘왕과 신하가 덕으로 만난 경사스러운 잔치’라는 뜻입니다.

오답 풀이

- (1) 경복궁은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누리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 (3) 강녕전은 ‘편안하고 건강하다.’라는 뜻으로, 왕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이름입니다.

3 경복궁은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지만 오늘날 복원 작업으로 그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내용이 5 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물이 복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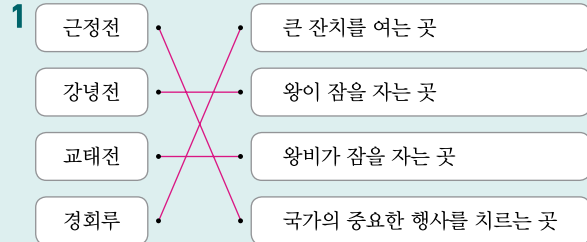
- ① 교태전은 왕비가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3문단)
- ② 경복궁은 조선 왕실의 공식적인 궁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5문단)
- ③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습니다.(1문단)
- ⑤ 외국에서 온 사신을 공식적으로 맞이하던 곳은 근정전이었습니다.(2문단)

4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은 각 건물의 쓰임새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④의 ‘열공방’이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쓰임새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었으므로 가장 적절합니다.

유형 분석/적용하기

이 문제는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 후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경복궁과 주요 건물들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134쪽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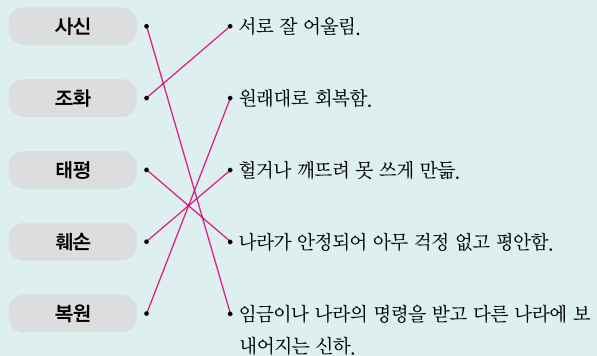
1문단	경복궁의 (이름)이 지닌 의미
2문단	(근정전)의 의미와 쓰임새
3문단	(강녕전)과 교태전의 의미와 쓰임새
4문단	(경회루)의 의미와 쓰임새
5문단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복원)작업

1 이 글에서는 경복궁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의 이름에 담긴 뜻을 설명하면서 각 건물의 쓰임새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2 1문단에서는 경복궁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밝히고, 2~4문단에서는 각각 근정전, 강녕전과 교태전, 경회루의 의미와 쓰임새를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5문단에서는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와 훼손되었던 경복궁의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

135쪽 오늘의 어휘



1 사신 / 훼손 / 태평 / 복원 / 조화

2 복원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다른 나라의 문자와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

017 쪽 지문 독해

1 ① 2 ② 3 ① 4 ③

- 1 이 글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 2 이 글은 중국의 한자, 영어의 알파벳과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유형 분석/전개 방식

글의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 3 3문단에서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 최적의 문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답 풀이

- ② 3문단에서 한글 'ㅏ'는 언제든지 '아'로만 발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③ 한글은 자음자 14개와 모음자 12개의 키보드 자판을 그대로 치기만 하면 되고, 천지인 입력 방식도 이용하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빠릅니다.
- ④ 한글은 한자처럼 알파벳으로 발음을 변환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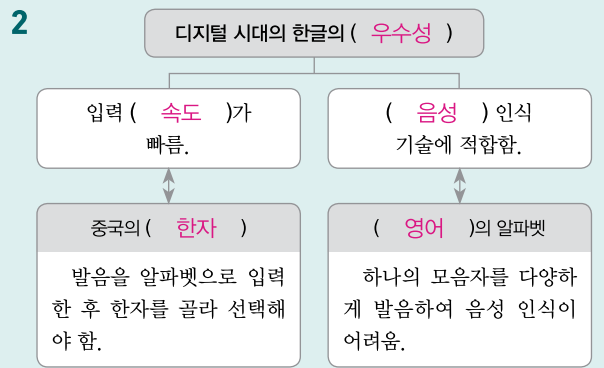
- 4 '하늘'이라는 낱말을 입력하려면 자음자는 'ㅎ, ㄴ, ㄹ'의 3개, 모음자는 'ㅏ, ㅡ'의 2개가 쓰이므로, 총 5개의 자판을 누르게 됩니다.

오답 풀이

- ①, ④ 한글은 중국의 한자처럼 알파벳으로 먼저 입력한 후 변환할 필요 없이 키보드 자판을 그대로 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② 한글의 모음자는 항상 동일한 소리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ㅏ'는 항상 '아'로만 발음합니다.
- ⑤ 천지인 입력 방식은 'ㄱ, ㅡ, ㅣ' 세 모음자만으로 한글의 모든 모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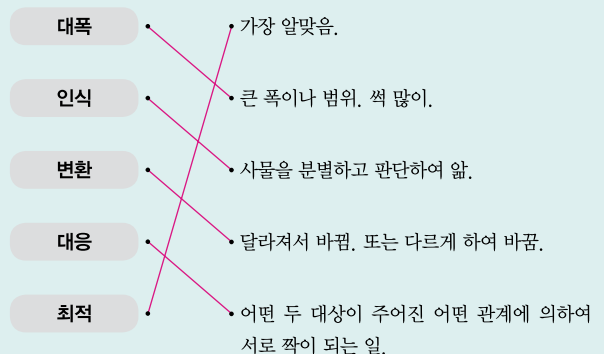
018 쪽 지문 분석

- 1
 - 1문단 한글은 글자만 보고도 발음을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이다. (○)
 - 2문단 한글은 입력 속도가 한자만큼 빠르다. (×)
 - 3문단 한글은 음성 인식 기술에 적합하다. (○)
 - 4문단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다. (×)



- 1 2문단에서는 중국의 한자에 비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른 한글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문단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강조되는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 이 글은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우수성을 다른 문자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019 쪽 오늘의 어휘



- 1 인식 / 최적 / 대폭 / 변환 / 대응
- 2 대응

정답과 해설

-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 글의 특징 이 글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의 두 가지 유래와 풍습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 글의 주제 한식의 유래와 풍습

085 쪽 지문 독해

1 유래 2 (1) ○ (2) ○ (4) ○ 3 ④ 4 ②

- 1 이 글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의 두 가지 유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는 한식의 유래 외에도 한식의 날짜, 의미, 풍습 등도 제시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한식의 유래이므로, 제목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말은 '유래'입니다.
- 2 (1) 2문단과 3문단에서는 한식의 유래에 관한 '개자추 설화'와 '개화 의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 4문단에서는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보며 제사를 지내는 한식의 풍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 1문단에서는 설날, 단오, 추석, 한식이 우리나라의 4대 명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3 한식이 개화 의례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에서는 오래된 불이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 새 불로 바꾸는 날에 찬 음식을 먹었던 것에서 한식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불을 생명력이 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4 문공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개자추를 잃고 난 후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이 속담은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 오답 풀이**
- ①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③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④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입니다.
 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086 쪽 지문 분석

1 보기 명절 설날 단오 추석 **한식**

2

(개자추) 설화

문공이 불에 타 죽은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개자추가 죽은 날에 (불) 을 금했던 것에서 유래됨.

(개화) 의례

오래된 불이 (생명력) 이 없다고 여겨서 쓰던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찬밥) 을 먹었던 것에서 유래됨.

- 1 이 글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에 관한 두 가지 유래와 한식의 풍습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 2 이 글에서는 한식의 유래를 '개자추 설화'와 '개화 의례'에 관한 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자추 설화'와 관련된 유래는 문공이 불에 타 죽은 개자추를 기리기 위해 개자추가 죽은 날에 불을 금했다는 데서 한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화 의례'와 관련된 유래는 백성들이 일 년 동안 쓰던 불을 끄고 나라에서 나누어 주는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을 쓰지 못하니, 미리 지어 둔 찬밥을 먹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답과 해설

087 쪽 오늘의 어휘

설화

• 몹시 분하게 여김.

즉위

• 임금의 자리에 오름.

분개

• 각 민족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

원시

• 처음 시작된 그대로 있어 발달하지 않은 상태.

의례

•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방식. 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1 원시 / 분개 / 설화 / 즉위 / 의례

2 설화

- **글의 종류** 현대 소설
- **글의 특징** 용이가 꿩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 **글의 주제** 부당한 일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 **글 ① 중심 내용** 용이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투정을 부리고 어머니는 조금만 참으라고 설득합니다.

061 쪽 **지문 독해**

1 ④, ⑤ 2 ㉠ 3 ④ 4 영준

1 ‘책 보통이’는 책을 보자기에 싸서 꾸러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책가방이 없던 시절에 사용한 것으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 학교’ 역시 지금의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 ① ‘참꽃’은 진달래꽃으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 ② ‘산기슭’은 일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 ③ ‘밭둑길’은 밭둑 위에 난 길로, 오늘날에도 농촌에 가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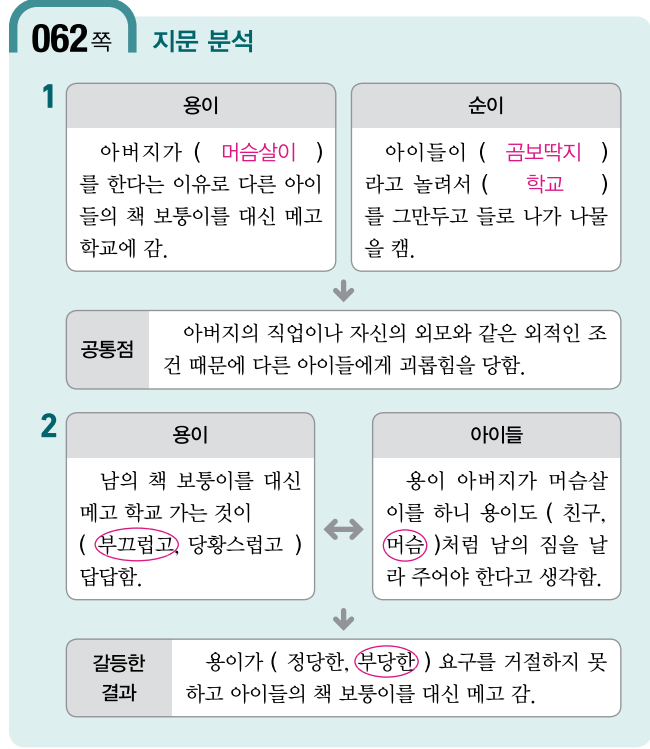
2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학교 갈 때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까지 대신 메고 가는 게 싫어서 어머니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올해만 하고 머슴살이를 그만둘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일 년만 더 참기로 하였습니다.

유형 분석/세부 내용

한 편의 소설에는 여러 인물들 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갈등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갈등은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주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용이와 엄마, 용이와 아이들의 갈등이 나오는데 용이가 학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생긴 엄마와의 갈등은 엄마가 들려준 아버지의 소식으로 해결이 되지요, 이처럼 갈등은 사건을 전개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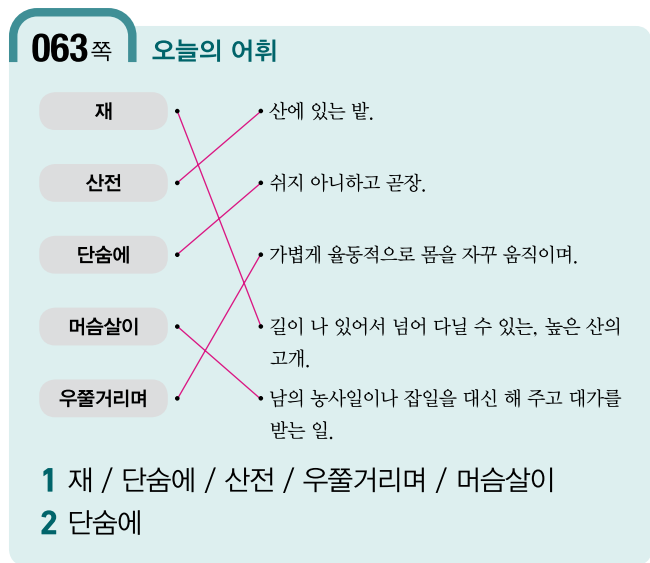
3 ㉠: 용이는 속상해서 학교에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 일 년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진 용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 용이는 반복되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4 용이는 4학년이 되어서도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메고 다녀야 하는 게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알맞은 감상입니다.



1 용이와 순이는 아버지의 직업이나 외모 같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 글에는 남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메고 가야 하는 용이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용이가 아이들과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글 ② 중심 내용 용이는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화가 나 돌맹이를 골짜기 아래로 던지고, 그 순간 날아오르는 핑을 보며 용기가 생겨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골짜기로 집어 던집니다.

065 쪽 지문 독해

1 ⑤ 2 돌맹이 3 ④ 4 ①

1 용이는 저학년 아이들이 자기를 비웃는 말에 화가 나 돌맹이를 골짜기 아래로 던집니다. 그 순간 날아오르는 핑을 보며 용기가 생겨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골짜기로 집어 던집니다. 이 행동은 용이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글의 중심 사건에 해당합니다.

오답 풀이

- ① 용이의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이지만 그 자체가 중심 사건은 아닙니다.
- ② 용이가 핑에게 돌을 직접 던진 것은 아닙니다.
- ③ 용이가 고개를 향해 뛰어 올라간 것은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던진 후 출가분한 상태에서 한 일입니다.
- ④ 2, 3학년 아이들이 용이에 대해 수군거린 것은 용이를 화나게 하여 용이가 돌맹이를 골짜기에 던지게 합니다. 이는 중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지 그 자체가 중심 사건은 아닙니다.

2 용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화가 난 마음을 돌맹이를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용이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핑을 보며 자신감을 얻어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골짜기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유형 분석/세부 내용

이 글에서는 용이의 태도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핑을 보기 전과 핑을 본 후의 용이의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핑을 보기 전에 용이는 아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책 보통이를 들어다 주지만, 핑을 본 뒤에 용이는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고 다니는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고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아이들과 맞서게 됩니다.

4 하늘로 날아오르는 핑을 보고 온몸에 어떤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 용이는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던 다른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골짜기로 던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용이는 핑을 보며 다른 아이들에게 맞설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066 쪽 지문 분석

1	핑의 모습	핑의 의미
	'정말 살아 있는 (생명)의 소리를 내며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름.	→ (포용력, 생명력)
	날개를 짝 펴고 (공지)를 짝 뺀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감.	→ (용기 , 평화)

- 2
- 골짜기 아래에서 핑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3
 - 용이가 돌맹이를 집어 골짜기 아래로 던졌다. 2
 - 용이가 책 보통이만 메고 고개로 뛰어 올라갔다. 4
 - 용이가 2, 3학년 아이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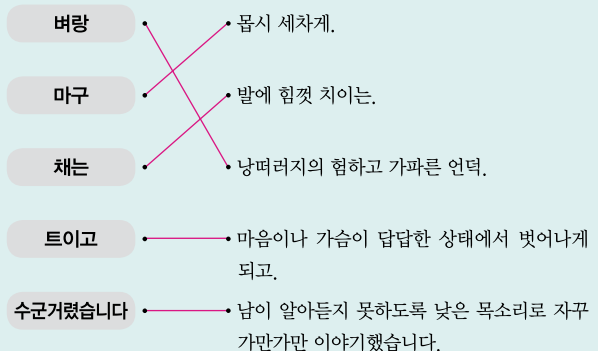
1 용이는 날아오르는 핑의 날갯짓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핑을 보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핑'은 생명력과 용기, 자신감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분석/소재 의미

소설에서 소재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아 글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소재인 '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핑에 대해 쓴 구절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067 쪽 오늘의 어휘



- 1 마구 / 벼랑 / 트이고 / 채는 / 수군거렸습니다
2 트이고

정답과 해설

• 글 ③ 중심 내용 용이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고 두 팔을 내저으며 학교를 향해 달려갑니다.

069 쪽 지문 독해

- 1 ② 2 ③ 3 (3) ○ 4 ㉠

1 이 글은 주인공인 용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용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 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조를 액자식 구조라고 합니다. 이 글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 ③ 특정 자연물(핑)에 대한 서로 다른 인물들의 생각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④ 이 글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⑤ 이 글에서 배경이 되는 시간을 묘사하여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알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용이는 아이들을 피해서 발밑에 있는 돌 두 개를 거머쥐고 커다란 바윗돌 위로 뛰어올랐을 뿐입니다. 용이가 거머쥔 돌을 실제로 아이들을 향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3 ㉠은 용이가 핑 같다고 직접 비유하였으므로 직유법을 사용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도 ‘그’를 ‘여우’에 직접 비유하였으므로 직유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오답 풀이

- (1) 꽃이 사람처럼 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 (2) 부모님의 사랑을 바다에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은 ~이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은유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4 이 글에서 용이는 “내일 아침에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고 용서 안 할 꺼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어질 내용으로 용이가 다음 날 순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순이를 놀리지 못하게 지켜 줄 것이라는 내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형 분석/추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이야기 흐름에 맞게 내용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글의 결말 부분에서는 용이가 핑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고 부당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맞설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상황에서 용이가 한 말이나 행동과 관련지어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070 쪽 지문 분석

1

표현하려는 대상	빚댄 대상
두 팔을 내저으며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용이)의 모습	소리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핑)의 모습

↓

효과	(용이)의 당당한 기세와 자유로움을 표현함.
----	----------------------------

2

용이의 말	용이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이제 못난 아이 아니야!” • “자, 텀빌람 텀벼! 누구든지 오는 녀석은 가만두지 않을 꺼다!” 	용이는 자신감 없던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 회피)하고 아이들과 당당하게 맞섬.

↓

주제	옳지 않은 (명예,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는 (희망, 용기)
----	---------------------------------------

1 용이의 모습을 ‘핑’에 빚댄 표현을 통해 용이의 당당한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형 분석/표현 효과

문학 작품에서는 비유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주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대상을 무엇에 빚대어 표현하였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이 글에서 용이는 머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책 보통이를 대신 메야 했던 부당한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071 쪽 오늘의 어휘

빙	• 이체에 이르러.
인제	• 동작 따위가 재고 빠르지.
한층	• 일정한 정도에서 한 단계 더.
재빠른지	• 비탈진 곳의 내려가는 방향.
내리받이	• 일정한 둘레를 넓게 둘러싸는 모양.

1 인제 / 빙 / 내리받이 / 재빠른지 / 한층
2 재빠른지

초·중·고 누구나 국어는

빠작



수능까지 이어지는 국어 실력
초등부터 고등까지 언제나 빠작!